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위한정치포럼'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시작한 정치모임으로 18대 국회에서 정식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한 이후 매년 (재)우수 의원연구단체로 평가받았다. 21대 국회에선 12명의 정회원 의원과 16명의 준회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타협과 조화의 정치문화를 가르치는 '일치를 향한 글로벌 리더십 청년학교'를 초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역시 2010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일치를위한정치포럼'은 1996년 5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한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일부로서(한국본부 대표: 김경우, 19대 국회의원) 보편적 형제애(universal fraternity)를 정치현실에 접목함으로써 인류 가족의 조화와 일치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치가 '사랑 중의 사랑'이며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에 충실할 때 인류애가 넘치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활동에 일한다. 따라서 평화와 생명, 정의, 환경보호, 인권의 자유 등 보편적 가치들에 충실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세계 20개국 3천여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New Humanity NGO는 '보편적 형제애(fraternity)'에 기초한 인류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1986년 New Humanity International Association NGO로 출발했다. 1948년 선포한 'UN 인권선언'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인종, 종교, 국경을 넘어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과 공동선(common good) 실현을 위한 행동 및 입장표명에 적극 나선다.

1987년 유엔 사회경제계기운(EGOSOC) 특별 자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ECOSOC의 일반 자문기관으로 승격되었고 2008년 유네스코의 공식 NGO 파트너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10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보편적 형제애'의 이상을 추진하고 확산시키는 이니셔티브인 United World Project(영년을 대상으로 하는 Youth for a United World 운동)의 파트너와 New Humanity International 운동(시민 네트워크를 통해) 등을 추진한다.



일 시 | 2023년 8월 18일(금)~19일(토) 이틀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 일치를위한정치포럼, 일치를위한정치운동(MPPU) 국제본부 및 한국본부, New Humanity NGO





2022 Summer Global Leadership Camp

Learning
Sharing
Growing together
to make
a better world







Meeting with National Assembly Member



<<2023>> Global Leadership School



Learning from social leaders
across various fields.





National Assembly Member meeting and discussion time as well

Broadened
our
perspectives
toward the
world



